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5da33facb6998f301d1c74722fc8543118592f36abad82be8ee9565bb448d0ca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9월 FOMC, 조만간 타이퍼링 시작. 금리인상은 2022년 시행 가능성
 - 미국 재무장관, 주요 투자은행 CEO에 부채상환 확대를 위한 도움을 요청
 - ECB 통화위원, 긴급자산매입 종료 시 기존의 양적완화(APP) 확대 여부 논의 예상
 - 중국恒大부동산, 9/23일 도래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 이자 지급 문제를 해결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중국恒大그룹 우려 완화와 9월 FOMC 등이 영향
주가 상승[+1.0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하락[-2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恒大그룹 우려 감소와 FOMC가 완화적이라는 평가 등이 반영
 유로 Stoxx 600 지수는恒大그룹의 역대 채권 이자 지급 소식 등으로 1.0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유로존일본의 통화정책이 미국 대비 완화적이라는 시각으로 상승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3%, 0.5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이 아직 매파적이지 않다는 분석 등이 배경
 독일은恒大그룹 관련 우려 완화 등으로 강보합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2.5원, +7.0원) 0.6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9/22일	9/21일	전일대비			9/22일	9/2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95.6	4,354.2	0.95%	국채 금리 10y	미국	1.30%	1.32%	-2bp
	유럽	463.20	458.68	0.99%		독일	-0.32%	-0.32%	0bp
	중국	3,628.5	휴장	0.40%	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29,639	29,840	-0.67%	CDS 5y	중국	43bp	45bp	-2bp
	한국	휴장	휴장	-		EMBI+	-	365	-
환율	달러지수	93.44	93.20	0.25%	위험 지표	VIX	20.87	24.36	-14.33%
	유로화	1.1687	1.1726	-0.33%		WTI유	72.23	70.56	2.37%
	엔화	109.78	109.23	-0.50%	원자재	구리	422.8	412.8	2.42%
	위안화	6.4622	휴장	0.06%		금	1,768.2	1,774.5	-0.36%
	원화	휴장	휴장	-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9월 FOMC, 조만간 테이퍼링 시작. 금리인상은 2022년 시행 가능성

- 경제 개선 지속 시 자산매입 속도 완화가 조만간 타당해질 수 있다고 판단. 18명의 통화위원 가운데 9명이 첫 금리인상 시기로 당초 예상되었던 2023년보다 빠른 2022년을 선택. 2023년까지 3~4회 금리인상을 예상
- 파월 의장은 이르면 테이퍼링을 11월에 시작하여 내년 중반에 종료할 수 있다고 언급. 다만 필요할 경우 좀 더 기다릴 수 있으며, 테이퍼링이 자동적인 금리인상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고 강조. 헝다그룹 상황은 중국 고유의 문제라고 진단
- 금년 성장률을 5.9%로 예상하여 이전(7.0%) 대비 하향.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금년 3.7%로 전망하여 이전(3.0%) 대비 상향. Capital Economics의 Ritchie Tuazon은 연준의 금리 경로가 여전히 완화적이며, 테이퍼링 내용도 예상에 부합한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장관, 주요 투자은행 CEO에 부채상환 확대를 위한 도움을 요청

- 옐런 장관은 JP모건, 씨티그룹, Wells Fargo, BofA 등 주요 투자은행 CEO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공화당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부탁. 일부 관계자들은 CEO들이 이번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언급

■ ECB 통화위원, 긴급자산매입 종료 시 기존의 양적완화(APP) 확대 여부 논의 예상

-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마디스 뮐러 총재는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 종료로 절벽 효과(cliff effect)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. 또한 APP의 확대는 PEPP의 종료와 향후 자산매입 계획의 일부라고 강조
- 한편 ECB 보고서에 따르면, 기후변화 지속 시 남유럽 은행권의 피해가 가장 심각할 전망. 해당 은행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기업에 대한 대출이 많기 때문. 이는 역내 은행의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 피해를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결과에 기반

■ Ifo 경제연구소, 독일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0.8%p 하향 조정한 2.5%로 제시

- 이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 등을 반영. Ifo의 Timo Wollmerschaeuser는 강력한 경기회복이 여름부터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체되고 있다고 진단

■ 중국 헝다부동산, 9/23일 도래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 이자 지급 문제를 해결

- 헝다부동산은 스촨시장에서 거래되는 2025년 9월 만기 채권의 이자 지급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했다고 발표. 그러나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개하지 않아, 시장에서는 양측이 이자지급 연기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
- 또한 23일 도래하는 달러화 표시 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 여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. 다만 Bondsupermart.com의 Dexter Tan은 이번 조치가 헝다그룹이 관련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

■ 중국 인민은행, 대출우대금리 동결. 은행권에 1200억위안 규모 유동성 공급

- 실질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(LPR)의 1년물과 5년물을 각각 3.85%와 4.65%로 유지. 7일물과 14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을 각각 600억위안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. 이는 이전보다 많은 편으로 헝다그룹 관련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

■ 일본은행, 정책금리 동결.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

- 실질적 기준금리인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율과 국채 10년물 금리 목표치를 각각 -0.1%와 0%로 동결. 또한 상장지수펀드(ETF) 연간 매입 상한을 12조엔으로, 기업어음 및 회사채 보유액 한도를 20조엔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지속한다고 발표

■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역내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7.1%로 하향

- 이번 전망치는 백신 보급 지연과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이전(7.2%) 대비 소폭 낮은 상황. 2022년 전망치는 5.4%로 동결. 한편 국가별로 델타 변이의 확산과 경제활동 제한이 상이하여 성장 속도가 균일하지 않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22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기존주택판매(만건,연환산): 588, 7월(599), 예상치(589)
- 유로존 9월 소비자신뢰: -4.0, 8월(-5.3), 예상치(-5.0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23 현지시각 기준)

- 영란은행 9월 통화정책회의, 미국, 유로존, 영국 9월 마켓 종합 PMI
- 미국 9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8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각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, 중앙은행들의 정책 변화가 요구 - Financial Times

(Inequality is behind central bank dilemma)

-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결과로 미국 소득 상위 10% 가구의 저축률은 하위 90%보다 10~20%p 높은 상황. 소득 불평등 야기는 중산층 부채 증가와 부동산, 주식 등 자산 가격 거품으로 연결. 아울러 불평등 심화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문제로 확산
- 초과 저축과 투자 동인 감소로 인한 중장기적 경제침체 가능성과 함께 과거 대비 큰 규모의 통화 및 재정정책이 강력한 수요와 공급망 차질로 연결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도 병존. 물가 상승이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
- 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중앙은행들은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. 이에 중앙은행은 선제적 조치로 채권매입 축소와 소폭 금리인상을 추진할 필요

■ 헝가리 위기로 중국 정부 규제와 국영기업의 생산성 문제 노출 - WSI

(Evergrande's Struggles Reflect China's Efforts to Rein in Multiyear Debt Boom)

- 중국은 2008년 이후 GDP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 등에 부채를 활용. 하지만 이를 통한 경제발전 모델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정부는 주택대출 규제 시행과 소비주도 성장으로 이행
- 그러나 전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, 규제당국의 첨단기술 기업 규제 등은 생산성 향상을 억제. 또한 생산성이 낮은 국영기업 우대 정책 등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탈피하는데 장애 요인

■ 미국 채권 투자자, 부채 한도 상향 관련 정치적·신용등급 우려 등에 무신경 - 블룸버그

(Bond Investors Have No Use for Politics or Credit Ratings)

■ 유럽의 재정규율 회귀, 역내 경제상황으로는 위험을 촉발시킬 우려 - Financial Times

(Europe should not return to pre-pandemic fiscal rules)

■ 중국 헝가리 문제, 금융위기 확산은 없겠으나 심각한 성장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 - 블룸버그

(Evergrande Isn't a Lehman. Now for the Bad New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